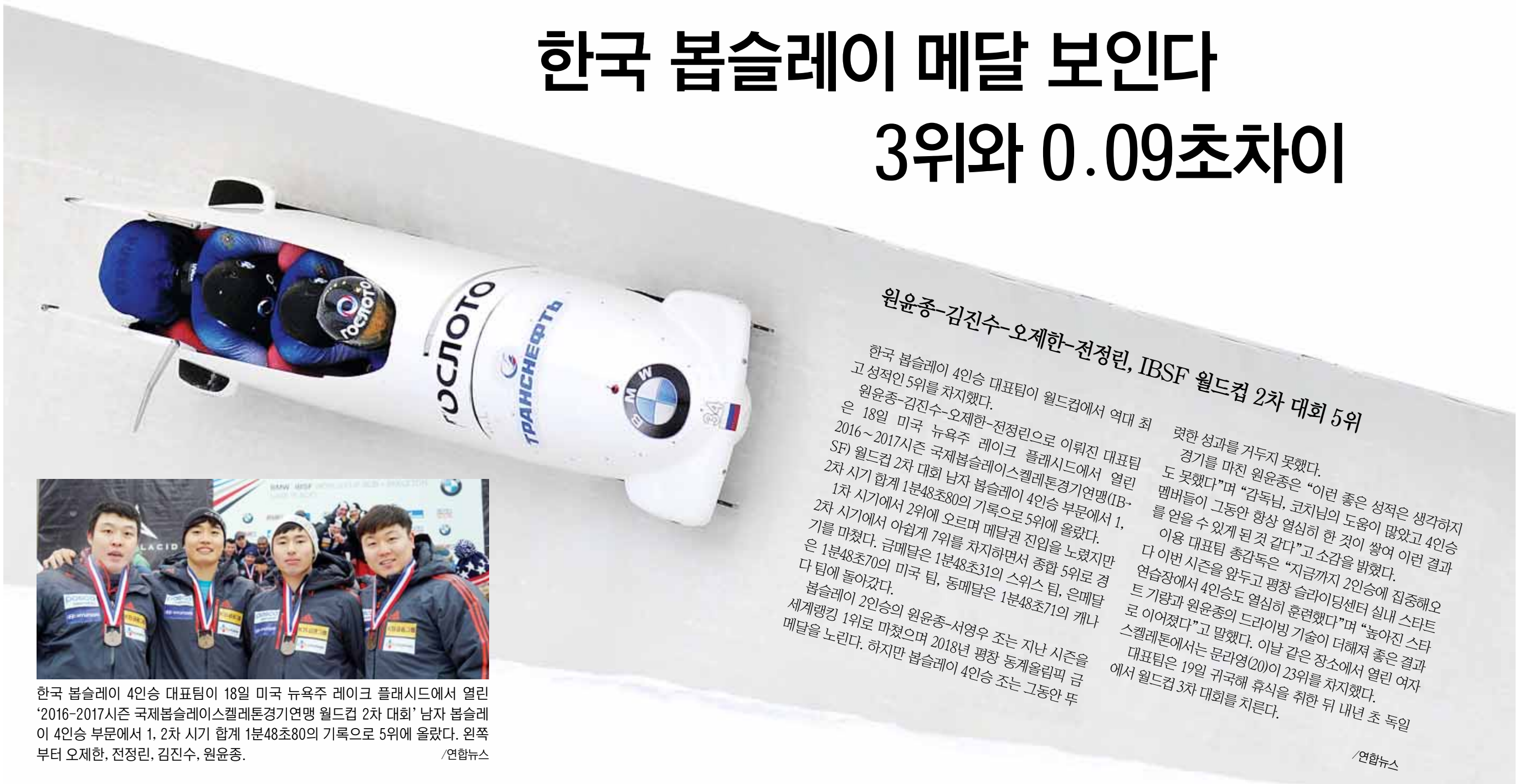


# 한국 봅슬레이 메달 보인다 3위와 0.09초차이



**원윤종-김진수-오제한-전정린, IBSF 월드컵 2차 대회 5위**

한국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를 차지했다. 원윤종-김진수-오제한-전정린으로 이뤄진 대표팀은 18일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2016~2017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봅슬레이 4인승 부문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48초80의 기록으로 5위에 올랐다. 1차 시기에서 2위에 오르며 메달권 진입을 노렸지만 2차 시기에서 아쉽게 7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5위로 경기를 마쳤다. 금메달은 1분48초31의 스위스팀, 은메달은 1분48초70의 미국 팀, 동메달은 1분48초71의 캐나다 팀에 돌아갔다. 2인승의 원윤종-서영우 조는 지난 시즌을 세계랭킹 1위로 마쳤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노린다. 하지만 봅슬레이 4인승 조는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윤종은 “이런 좋은 성적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감독님, 코치님의 도움이 많았고 4인승 멤버들이 그동안 항상 열심히 한 것이 쌓여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평창 슬라이딩센터 실내 스타트 트 기량과 원윤종의 드라이빙 기술이 더해져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 스켈레톤에서는 문라영(20)이 23위를 차지했다. 대표팀은 19일 귀국해 휴식을 취한 뒤 내년 초 독일에서 월드컵 3차 대회를 치른다.



한국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18일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2016-2017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봅슬레이 4인승 부문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48초80의 기록으로 5위에 올랐다. 왼쪽부터 오제한, 전정린, 김진수, 원윤종. /연합뉴스

## 적은 연봉 서러운데 운동할 곳 마땅찮네

12월 비활동기간 운동장 출입 금지  
장소 물색 고충...고연봉 선수 해외로

누군가에게는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는 소중한 12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된 달고 배고픈 12월이다. 프로 야구 선수들에게는 '양극화'의 겨울이다.

12월과 1월은 프로야구 비활동기간이다. 선수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인 만큼 수입도 없다. 야구 규약에 따르면 '참가활동 보수의 대상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연봉은 10회로 분할 지불한다'고 정해져 있다.

수입은 없지만 돈 쓸 곳은 많다. 12월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결혼 시즌이다. 송별회 등 연말 모임도 많다. 저연봉 선수들에게는 배고픈 12월이다. 그래서 저연봉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유일한 수입원인 초상권료 수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당연히 초상권 수입도 고연봉 선수가 많다.

심리적인 빈부격차도 크다. FA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겨울에는 공식적인 100억선이 무너졌다. 2012년 겨울 김주찬의 50억 계약으로 술렁거렸던 FA 시장은 불과 4년 만에 100억대로 확장됐다. 하지만 최저연봉은 지난 2014년 5년 만에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된 게 전부다. 무섭게 치솟는 FA 금액을 뒤로하고, 저연봉 선수들은 몇백 만원의 연봉 인상액을 놓고 구단과 씨름을 하고 있다.

돈고민 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 고민으로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한다. 12월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자리 경쟁을 위한 전초전이다. 저연봉 선수들에게 더 부담이 많은 준비 운동기간이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운동장 물색이라는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지난 총회에서 비활동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는 측면에서 12월 야구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구단의 강제적인 훈련으로 선수들의 비활동기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대신 전국 스포츠센터 20개, 재활센터 12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에 따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챌린저스 필드가 문을 닫으면서 KIA 선수들은 기아스포츠센터, 빅스포, 이동호 선수트레이닝 센터 등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장 개방이 되지 않자 고민 끝에 본가로 가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있다.

단 신인 선수들과 군 제대 선수들은 예외로 두면서 함평 챌린저스 필드는 개방됐다. 챌린저스 필드에서는 2017 신인선수들과 박경태, 이경록, 박지훈, 이진경 등 군 제대 선수들이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장 개방 금지를 놓고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저액 연봉자 입장에서 익숙하고, 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장에 운동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편하다”, “본가에서 훈련을 하자니 이것저것 짐을 많이 챙겨서 다녀와야 하는 게 번거롭다”, “일반인들과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액 연봉자들의 눈은 따뜻한 해외로 향해 있다. 최형우가 17일 괌으로 출국해 한 달 정도 훈련을 할 계획이다. 나지완도 이범호와 함께 괌 훈련을 고민하고 있다.

국가 극의 환경 속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12월이 흘러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최민정·심석희 4연속 2관왕...쇼트트랙 금4·은1·동1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대표팀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4차 대회 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서 4연속 대회 2관왕에 오른 최민정(서현고), 심석희(한체대)의 쌍끌이 활약으로 다시 한 번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최민정은 18일 500m에서 올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계주에서도 우승해 4연속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그는 500m 결승에서 42초 461의 기록으로 중국 판커신, 폴란드 나탈리아 말리셰프스카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지난 월드컵 2차 대회와 3차 대회 500m에서 연속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대표팀 취약 종목인 단거리 500m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본인으로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500m에 욕심이 많다”고 말했던 최민정은 판커신(세계랭킹 2위), 이탈리아 아리안나 폰타나(4위), 제이미 맥도날드(8위), 나탈리아 말리셰프스카(10위)와 결승전을 치렀다. 3번 레인으로 출발한 최민정은 3위로 출발했다. 그는 곧바로 2위를 달리던 판커신을 제친 뒤 2바퀴를 남기고 1위로 올라갔다. 이후 2위 판커신과 큰 격차를 보이며 가볍게 우승했다.

최민정은 전날 열린 여자 1,000m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지만, 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최강 스케이터의 자

존심을 굳건히 지켰다.

최민정, 심석희(한체대), 노도희(한체대), 김지유(화정고)가 나선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에서 4연속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열린 3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우승한 여자대표팀은 안방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까지 석권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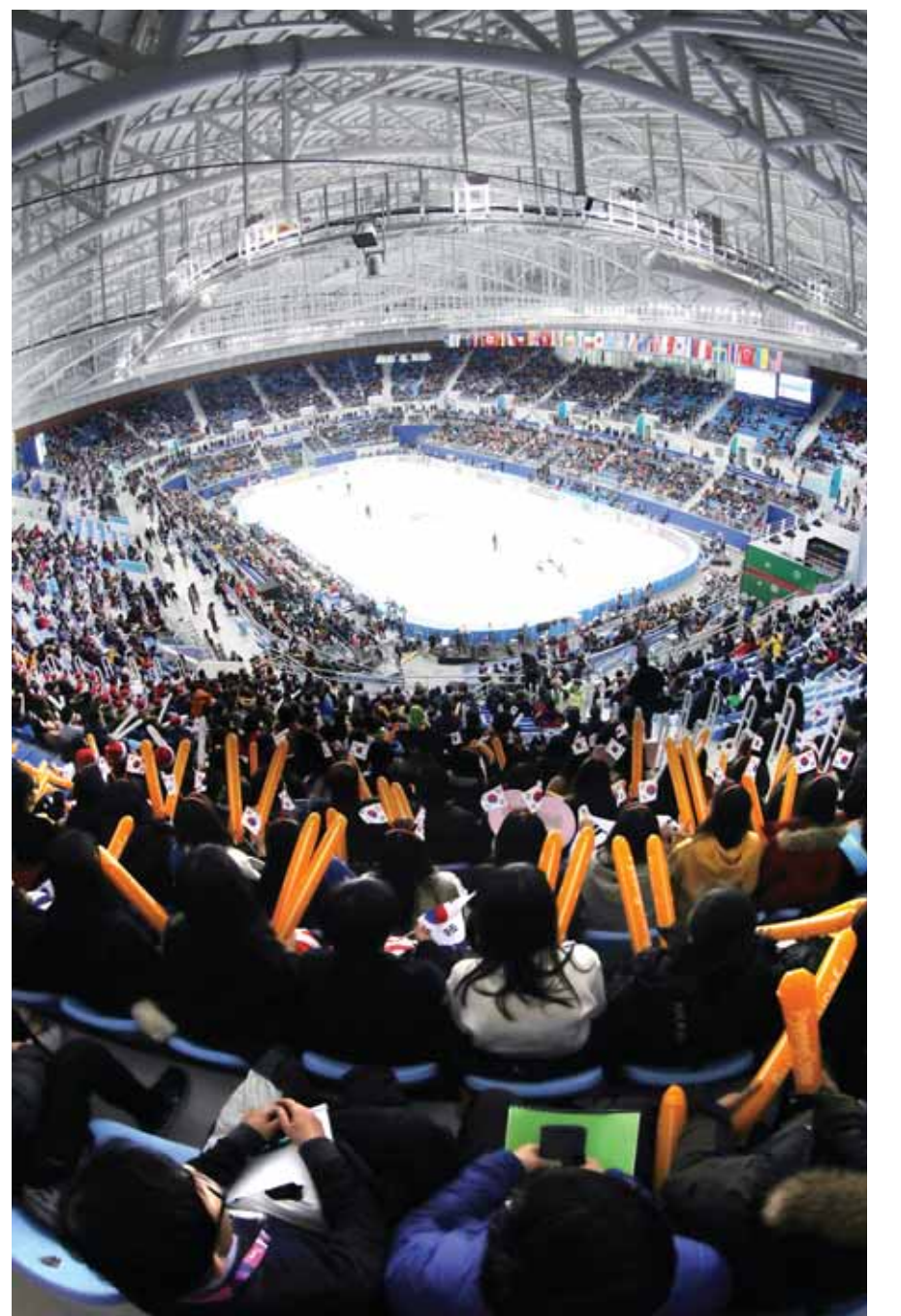
대표팀은 3위를 달리다 9바퀴를 남기고 심석희가 힘을 내 2위 자리를 탈환했다. 대표팀은 네덜란드와 치열한 선두 싸움 끝에 1위로 올라섰고, 마지막 주자 최민정이 독주하며 손쉽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심석희는 전날 1,500m 우승에 이어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추가, 4연속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심석희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동메달도 추가했다.

남자 500m에 출전한 한승우(국군체육부대)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승우는 첫 코너를 돌다 뒤에서 추격하던 안현수(러시아 명 빅토르 안)와 충돌해 선두권에서 멀어졌다. 그는 최하위로 결승선을 끊었지만, 안현수가 실격처리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대표팀은 계주에서 실격 처리돼 메달을 기록하지 못했다.

한편 대표팀은 전날 심석희, 이정수(고양시청)가 1,500m에서 우승했고, 최민정이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18일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ISU 쇼트트랙 월드컵이 펼쳐진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이 관중으로 가득 찼다.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16~18일 사흘간 2만9천500여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선수도 놀란 함성 “눈치싸움엔 불리”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강릉 아이스 아레나 구름 관중

2018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엔 연일 구름 관중이 불리고 있다.

예선전이 열린 16일엔 4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했고, 메달 레이스가 펼쳐진 17일엔 총관중 수 1만 320명을 기록했다. 대회 마지막날 18일에도 1만3000여 관중석이 가득찼다.

관중들은 한국 선수들이 땀 때마다 천둥 같은 응원 소리를 보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각종 국제대회에 많이 참가했지만, 전에 없던 응원 열기에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여자 대표팀 최민정(서현고)은 17일 경기를 마친 뒤 “응원 소리가 매우 크더라. 레이싱을 할 때 힘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심석희(한체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팬이 찾아주셨다”며 놀란 눈치를 숨기지 않았다.

선수들은 응원 소리가 주는 좋은 효과를 설명하면서 나쁜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최민정은 “상대 선수들이 관중들의 함성을 듣고 길을 막는 등 대처하더라”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안 훈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정의 말처럼 관중들의 응원 소리는 자국 선수의 작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쇼트트랙에선 앞선 선수 몰래 속력을 높이는 ‘눈치싸움’을 펼쳐야 하는데, 질주 타 임팩에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커질 경우 작전을 간파당할 수도 있다.

한국 선수들이 속력을 높일 때마다 관중들은 크게 환호했고, 이에 반응해 이리저리 몸을 놀리는 외국 선수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심석희는 “한국 대표팀도 외국에서 경기를 치를 땐 현지 관중들의 함성에 맞춰 상대 작전을 알게 된다”며 “흠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선수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